

편집후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에서는 약 3년에 걸쳐 양국에서의 고대 한일관계사연구, 특히 4세기에서 6세기의 주요 과제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해석에 관하여, 6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연구, 조사를 행하여 왔다. 이처럼 양국의 전문 연구자가 주어진 특정의 테마에 관하여 같은 테이블에서 얼굴을 맞대고 지속적으로 치밀한 논의를 거듭하며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은 지금까지 그다지 없었던 일이 아닐까 한다.

제1분과에 참여한 각 위원 간에는, 공동연구의 위치 정립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과 이른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결부시키는 견해도 있었고, 다양한 학설에 대한 역사연구 상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래서 다소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연구를 진행시켜왔다.

20회에 걸친 합동분과회에서는 유익한 의견 교환으로 인하여 상호 이해가 깊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사료 해석의 전제가 되는 연구의 기본 입장의 차이를 통감하며 공통의 인식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또 미묘한 문제를 둘러싼 통역, 번역에 관하여 서로 고충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동연구, 조사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귀중하면서 유익한 경험이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합동분과회에서는 각 위원의 연구 발표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료나 유적의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도 귀중한 기회였다. 한일 양국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여러 유적, 사료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향후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한일관계사 분야의 과제가 부각되어 온 것도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 공동연구는 이제 종료하지만, 이번의 귀중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레벨에서 한일 쌍방의 공동 연구 조사가 더욱 전개되기를 바란다. 또 우리들 자신도 이 성과 위에서 한층 연구를 진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여, 그것을 각 방면으로 넓혀가고 싶다.

이 보고서는 한일 양쪽의 위원들의 합의 하에, 각 위원의 연구 성과 등 각각 같은 내용을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편집한 것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한일관계사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양국 젊은이들의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가 있다면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 3년 동안 합동분과회의 개최 및 유적, 자료 조사에 협력하여 주신 초청 강연자, 여러 기관, 기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사무국으로서 제1분과의 운영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한국측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사무국과 일본측의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여러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26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위원 일동